자유통일 · 자유민주주의 · 세계시장
뉴데일리 미디어그룹이 뛉니다
뉴데일리 · 뉴데일리경제 · 시장경제신문

시장경제

2011년 9월 7일 창간 안내 02-757-1830 Meconomynews.com 제150호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빅데이터로 보는
진짜 뉴스
진짜 민심
www.bigtanews.co.kr
데이터 저널리즘의 새 지평
빅터뉴스
워드미터

지자체들 "소상공인 금융지원"… 언제 통장에 꼽힐까?

중앙정부, 2.3조 규모 '새희망자금' 발표
지역선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이자 지원
은행들, 대출 한도 늘리고 기준은 간소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전국 각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매출 타격을 입은 곳으로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도 이자 지원, 이자 감면부터 대출 기준 하향까지 방식도 점점 다양지고 있는 모습이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시행한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9월 25일 지급을 시작한 후 10월 21일까지 총 210만7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조2875억원이 지급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신용등급, 특히 저신용층에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2차 프로그램의 일평균 대출액은 9월 23일 이전 74억원에서 10월 23일 이후 75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각종 정책자금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 지체가 발생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므로 신용등급 7등급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책도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10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융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이율 이자 2%(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50억원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하는 상품이다.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경남 거제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거제시 희망-up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도내 소상공인은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보증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중 연 2.5%의 이자차액을 3년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1%를 1년간 지원한다.

전남 나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영안정 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연 3%를 2년간 지원한다.

민간기업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의 금리우대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연 2.8%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국내 배달대행 서비스 1위 업체인 '생각대로'와 소상공인의 매출 및 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Quick 정산 서비스'를 내놓았다.

소상공인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20일 후에 받을 수 있는 매출 대금을 매출 발생 다음 날 받게 한 서비스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한도로 신규 지원하며, 최대 1.0% 금리혜택을 지원해준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과 이자 또한 유예 가능하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코로나19 방역하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최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자율방재단, 상인회,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일자리 지난달만 83만개 증발

코로나 충격 서비스업 강타
제조→서비스→지식산업 순

KDI 분석

코로나19 확산으로 번지고 있는 사라진 일자리가 9월 한달만 83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시작된 고용충격은 점점 확산돼 지식산업과 지역 서비스업 타격으로 이어지며 교역산업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DI 이종관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충격 양상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없어진 일자리 수는 4월과 9월 각각 108만개, 83만개로 추정됐다. 헬스케어, 미용, 여가 등 서비스업종들이 소비감소에 직격탄을 맞으며 빠르게 사라졌다.

보고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산업에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이후 교역산업 일자리 피해가 점차 늘고 있고 9월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9월까지 제조업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충격이 계속되면 향후 10년간 서비스업 일자리 16만개가 추가로 사라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제조업 일자리 1개가 사라지면 지역서비스업 일자리도 1개 사라지고, 지식산업 일자리가 1개 사라지면 지역서비스업 일자리는 3.2개가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교역산업 일자리는 3월 -13만3000개, 4월 -10만4000개, 5월 8만2000개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교역산업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감소폭을 키우고 있는데 8월에는 -14만8000개에 이어 9월에는 -19만1000개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일자리는 숙련도가 높아 한번 사라지면 복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점을 주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역산업 일자리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경우 코로나19가 완전 종결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역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고용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숙련도가 높은 분야에 둬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단기일자리를 늘리거나, 정부·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확대보다는 제조업과 교역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6만8000명 줄어드는 등 7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일시적 충격때문에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종결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전세 '부르는게 값' 강남 84㎡ 20억

래미안퍼스티지 19억 기록
전세자금대출 잔금 120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다 못해 대기권을 뚫을 기세다. 임대차3법 시행후 서울 전반에 걸쳐 매물잠김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은 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인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전세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 20억원을 목전에 둔 19억원에 거래된 건수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현재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로 전용 84㎡T타입 3층이 지난 5월19일 19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84㎡B타입 33층이 지난 7월21일 18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고,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84㎡A타입 30층도 같은달 23일 18억원에 신고가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강남권 다른 단지들도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C타입 9층 경우 10월8일 17억원 신고가에 세입자를 얻었고,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A타입 4층은 지난 8월5일 17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으며 최고가를 갱신했다.

전세가격이 폭등하자 국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사상 처음으로 120조원을 넘어섰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